

2020년도 세계 보험산업 전망

요약

2020/21년 손해보험료 및 생명보험료는 각각 약 3%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흥아시아의 성장이 세계 보험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손해보험 시장은 세계 보험료가 평균 성장을 회복하여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생명보험 시장도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며,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들의 양호한 ROE로 향후 전망이 긍정적임

2019년 세계 보험회사들의 M&A가 활발하였으며, 2020년에도 M&A 증가가 예상됨. 2020년에도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들의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 하락이 전망되므로 투자활동 재정비가 필요함

1. 보험산업 전망

■ (세계 보험 성장 전망) 2020/21년 손해보험료 및 생명보험료는 각각 약 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흥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 특히 중국이 선도하는 가운데 아시아가 향후 2년간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아시아지역의 2020년 손해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 개인보험 기준)는 9%, 생명보험료는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보험료 점유율은 신흥시장이 현재 23%에서 2029년 33%로 상승할 것이며, 선진시장은 현재 77%에서 2029년 6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 전망) 2020/21년 예상되는 전 세계 손해보험료 증가율은 약 3%이며, 전 영역에 걸쳐 보험 상품 효율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익성 전망은 불투명함

- 특히 기업 손해보험의 경우 약 5년간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으나 2019년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가격 상승이 나타났으며, 2020년에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지역별로 EME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낮은 성장이 예상되나, 신흥시장에서는 아시아가 계속 앞서나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언더라이팅 결과가 개선될 전망이며, 유럽은 2020/21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의 경우 합산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은 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분야인 자동차보험의 판매 감소로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전망) 전 세계 생명보험료는 2020/21년 신흥시장(+9%) 및 선진시장(+1.5%)의 성장으로 연간 약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ROE 수준으로 이익 전망이 긍정적임

- 선진시장의 실질보험료는 북미지역(+2%)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저조(+0.5%)할 것이나, 신흥시장의 보험료 성장은 약 9%(중국 11%, 기타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ROE는 미국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도 연 데이터를 참조할 때 산업가중평균이 10.4%(평균 11%)로 추정됨

2. 주요 이슈

■ (주요이슈 1: M&A) 2019년 상반기 세계 보험회사들의 M&A는 222건으로, 2018년 하반기 (196건)에 비하여 13.2% 증가해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수어테크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M&A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Global Data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세계 보험회사들의 M&A 거래액은 129억 2,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 평균 29억 6000만 달러 대비 336.3% 상승함
- M&A의 원인으로는 인수어테크,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흥 시장 진출, 제도의 변화 등이 있음

■ (주요이슈 2: 저금리) 2020년에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들의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 채권을 감안할 때, 낮은 국채 수익률은 특히 생명보험회사에 부담이므로 투자활동에 재정비가 필요함

- 생명보험회사들은 광범위한 자산에 투자하지만,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고정수익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저하됨
- 낮은 투자 수익률은 고정금리 보장 상품의 이자 지급에 부담이 되고, 보험금 지급 능력에도 영향이 있음
- 수익률 향상을 위해 대안자산(예: 사모펀드, 부동산) 및 이율이 낮은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으나, 수익률과 자산의 균형이 필요함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skim@kiri.or.kr, sms27@kiri.or.kr

별첨: 산업별 전망 및 주요이슈

1. 서론

■ 스위스리¹⁾에 따르면, 2020/21년에 손해보험료 및 생명보험료가 각각 약 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시아지역 등 신흥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스위스리는 2021년까지 손해보험료 및 생명보험료가 평균 3%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보험업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특히 중국의 선도로 아시아가 향후 2년간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아시아지역의 2020년 손해보험료(자동차보험을 제외 개인보험 기준)는 9%, 생명보험료는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보험료 점유율은 신흥시장이 현재 23%에서 2029년 33%로 상승할 것이며, 선진시장은 현재 77%에서 2029년 6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9년까지 순보험료의 추가 규모를 감안하면, 신흥시장은 생명보험의 48%, 손해보험의 4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표 1〉 세계보험 시장 주요 지표

구분			세계			선진시장									신흥시장		
						북미			EMEA ¹⁾			아시아 태평양					
			과거	현재	전망	과거	현재	전망	과거	현재	전망	과거	현재	전망	과거	현재	전망
손해보험																	
보험료 성장(실질)		연평균 성장률	3.1% 	2.9% 	2.7% 	2.2% 	2.4% 	1.5% 	1.5% 	1.1% 	1.1% 	1.7% 	3.2% 	2.5% 	7.8% 	5.8% 	6.8%
수익성	ROE	평균	7.2% 	7.2% 	7.4% 	7.1% 	7.5% 	7.9% 	6.7% 	6.6% 	6.8% 	9.2% 	6.0% 	5.0% 	-	-	-
	언더라이팅 결과*	평균	1.0% 	1.9% 	2.0% 	-0.1% 	1.1% 	1% 	2.1% 	1.4% 	1% 	5.6% 	7.9% 	6% 	-	-	-
	투자 결과*	평균	10.4% 	9.5% 	10% 	11.4% 	10.5% 	11% 	9.0% 	7.8% 	8% 	8.0% 	6.2% 	6% 	-	-	-
생명보험																	
보험료 성장(실질)		연평균 성장률	2.7% 	2.3% 	3.1% 	0.9% 	2.0% 	2.2% 	2.2% 	-0.3% 	1.0% 	0.7% 	0.1% 	1.3% 	9% 	8.8% 	9%
수익성	ROE	평균	9.4% 	10.2% 	-	10.3% 	11.1% 	-	8.2% 	10.4% 	-	9.3% 	9.3% 	-	-	-	-

1) Swiss Re(2019. 11. 13), "Sustaining resilience: global economic and insurance outlook 2020/21"

〈표 1〉 계속

구분			세계			선진시장									신흥시장		
						북미			EMEA ¹⁾			아시아 태평양					
			과거	현재	전망	과거	현재	전망	과거	현재	전망	과거	현재	전망	과거	현재	전망
총계(주식 시장 지표)																	
PBR	보험 분야	평균	1.2●	1.3●	-	1.3●	1.4●	-	1.1●	1.2●	-	1.3●	1.3●	-	-	-	-
총 시장		평균	2.1●	2.1●	-	3.3●	3.4●	-	1.8●	1.7●	-	1.6●	1.4●	-	-	-	-
주식 가격	보험 분야	연평균 성장률	1%●	14%●	-	4%●	15%●	-	-2%●	12%●	-	-1%●	15%●	-	-	-	-
	총 시장	연평균 성장률	1.6%●	12.3%●	-	2.7%●	16.6%●	-	-3.6%●	9.0%●	-	-2.0%●	7.5%●	-	-	-	-

주: 1)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2) * 순보험료의 백분율로 표시함

3) 과거의 추세(2014~2018); 현재(2019); 전망(2020~2021); CAGR=연평균 성장률(Compound Average Growth Rate), 장기편차에 따라 색상을 구분함

4) 장기추세로부터의 편차 색상

< -1.5%

-1.5% ~ -0.5%

-0.5% ~ 0.5%

0.5% ~ 1.5%

> 1.5%

5) 손해보험은 재산·사망 및 건강보험을 포함함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Swiss Re Institute/Swiss Re(2019. 11. 13), "Sustaining resilience: global economic and insurance outlook 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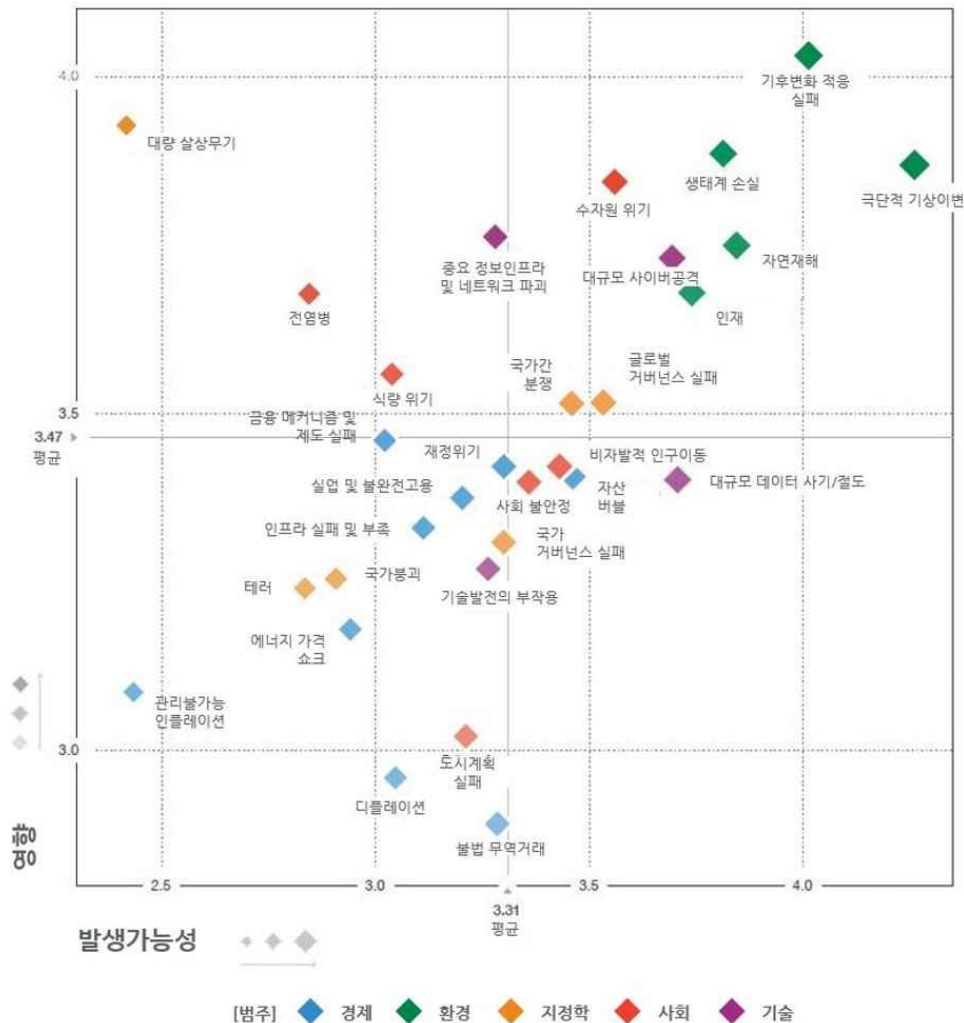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위험 조사²⁾에 따르면, 2020년 지정학적·경제적 충돌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의 취약성 및 사회통합 약화가 우려되고, 환경·디지털 및 보건시스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경제·인구·기술력을 가진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적 충돌이 증가할 것이며, 글로벌 보험회사 CEO들도 미·중 무역 전쟁 및 브렉시트를 주요 리스크로 평가함³⁾
 - 글로벌 CEO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총 25명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40%), 영국의 EU 탈퇴 관련 브렉시트(32%), 반이민정책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 성향의 정당 증가(28%)가 주요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무역장벽 증가, 투자환경 악화, 부채 증가로 세계경제가 취약해졌으며, 국가 간 경제적·사회적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회통합력이 약화됨
- 향후 발생 가능 위험 상위 5위가 모두 환경 위험으로 나타나며 환경위험의 심각성이 두드러졌으며, 사이버 보안, 수명연장 및 만성질환 비용의 증가로 보건시스템 위험도 증가함

2) WEF(2020. 1. 15),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3) KPMG(2019. 12), "Global Insurance CEO outlook 2019"

〈그림 1〉 2020 글로벌 위험



자료: WEF(2020)

2. 손해보험

가. 세계 보험료 평균 성장 회복 및 안정세 유지

스위스리는 2020/21년 전 세계 손해보험료 성장률을 약 3%로 예측하였으며, Moody's⁴⁾도 손해보험(P&C, Property&Casualty) 시장이 경제 성장, 자본력, 상품 요율의 상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스위스리는 경제성장이 부진한 국가의 경우 2019년 보험료 성장 예상치(2%)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Moody's는 성장 장애 요인으로 지급보험금의 증가와 낮은 투자 수익률을 지적함

4) Moody's(2019)

- 지역별로는 EMEA(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시장점유율 31%) 및 아시아 태평양(시장점유율 25%), 라틴아메리카(시장점유율 4%)의 경우 향후 12~18개월간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선진시장의 보험료(세계 시장의 95% 규모)는 2년 동안 매년 약 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2년간 호주의 성장 저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신흥시장에서는 아시아가 계속 앞서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년간 비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기대됨
 - 신흥시장의 2020/21년의 연간 실질보험료 성장률은 2019년 5.8% 보다 높은 7%로 전망됨
 - 2019년 신흥시장 보험료 성장을 주도한 PMI(Private Medical Insurance)는 2020/21년에 8~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의 보험료 성장이 현재 평균 이하 수준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로는 북아메리카의 성장과 함께 중국의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프랑스는 저금리로, 네덜란드는 보험업종 통합으로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북아메리카는 전 세계 손해보험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최대 시장으로, 기업보험 요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성장하였으며, 재해 및 기업용 자동차보험의 수요 증가로 향후 12~18개월간 최소 5% 성장이 기대됨
- 미국은 기업용 자동차보험, 일반 책임보험, 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높은 요율 인상이 있을 것이나, 단체 사망보험 손실비용 증가 및 일반책임보험 등의 준비금 부족으로 2020년 언더라이팅 이익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은 보험료의 소폭 인상이 예상되나, 지급보험금 증가 및 경쟁 심화로 투자수익 감소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은 건강, 농업, 자동차보험과 같은 책임보험 외로 보험산업이 확대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32년 중국 보험시장 규모는 보험료 기준 2조 3600억 달러로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⁵⁾
 -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중국 PMI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PMI 보험료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⁶⁾
 - 단,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판매 감소 및 시장 자유화⁷⁾ 이후 경쟁심화로 인해 성장이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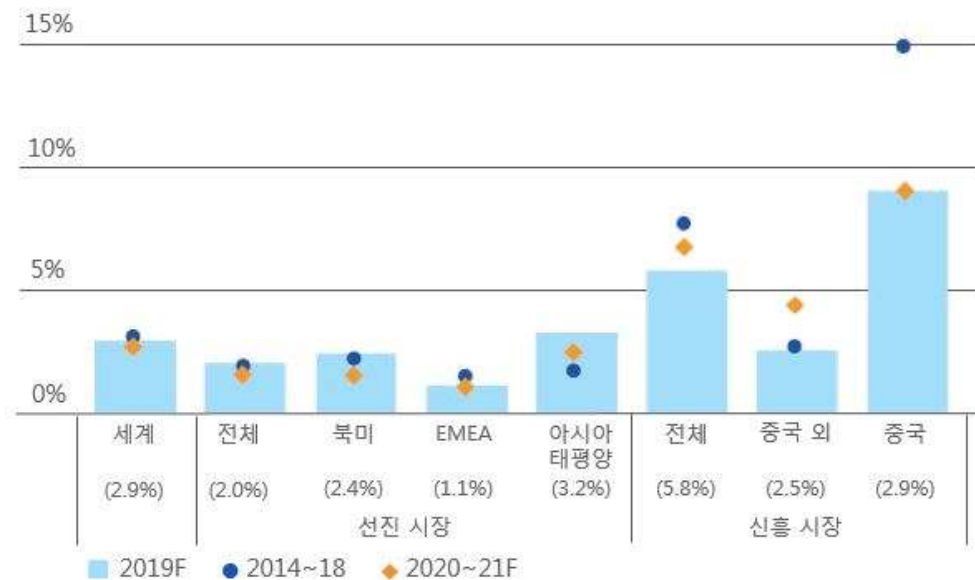
5) SCMP(2019. 3. 7), "China will become world's biggest insurance market by mid-2030s, speeding past US on the way, says analyst"

6) Swiss Re(2019. 11. 13), "Mid-market private health insurance in China: key pointers for success"; 중국의 국민소득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암 등 주요 질병을 한정적으로 보장하는 단기 정액보험의 판매가 급증함. 1백만 위안 이상을 보장하는 Million Medical이 활발하게 판매 중임

7) CIRC(2017. 6. 9), "商业车险改革新闻发布会"; 중국의 자동차시장 자유화 조치는 2015년 6월 6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15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됨. 가격 및 약관의 자유화를 통해 가격의 자율성 증대 및 보장 범위가 다양해짐.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운전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짐

- 프랑스는 저금리 및 높은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성장이 불투명함
- 네덜란드는 최근 보험업종 통합으로 가격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높은 P&C 합산비율로 투자수익에 더 의존하게 되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전망임

〈그림 2〉 전 세계 손해보험료 증가 추이(2019년 기준)



자료: Swiss Re Institute

나. 보험요율 성장 지속

스위스리는 보험금 청구 증가 및 저금리 환경, 수익성 등에 기초하여 2020년까지 전 영역에 걸쳐 보험 요율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함

- 약 5년간 지속적으로 요율이 하락하였으나, 최근 2019년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요율이 인상됨
- 특히 기업 손해보험 분야에서 2019년 요율 상승이 호조를 보였으며, 2020년에도 요율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재산보험 및 금융전문가 배상책임보험(FinPro, Financial and Professional liability)에서 요율 상승이 높게 나타남
 - 재산보험은 주로 대재해로 인해 요율이 상승하였으며, FinPro와 관련하여서는 이사 및 임원 배상책임 보험(D&O, Directors and Officers)의 청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3〉 글로벌 기업보험가격 지수 2012~2020년 2분기(상단), 2019년 2분기(하단)



비율 변화	세계	미국	영국	유럽 대륙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재산	8.0 ↑	9.9 ↑	3.5 ↑	4.1 ↑	0.3 ↗	4.9 ↑	17.8 ↑
사망	1.0 ↗	0.8 ↑	-1.0 ↗	-0.4 ↗	0.8 ↘	-0.4 ↗	5.7 ↗
FinPro	9.7 ↑	7.0 ↑	15.0 ↑	1.3 ↑	1.4 ↘	2.7 ↑	27.5 ↑
종합	5.8 ↑	4.8 ↑	6.3 ↑	2.0 ↑	0.5 ↗	3.5 ↑	18.3 ↑

주: 화살표는 2018년 2분기 이후 금리 변동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Marsh; Global insurance rate index; Swiss Re Institute

다. 수익성: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망 불투명

- 2019년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소폭 상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 수익률은 저조하였으며, 저금리 및 자산 가격 변동성이 높은 환경을 감안할 때 향후 수익성 개선은 예측하기 어려움
 - 2018~2019년 상반기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손해보험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북아메리카도 수익성이 개선되어 2019년 상반기 ROE가 상승함
 - 미실현 투자 이익을 제외한 미국의 ROE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ROE는 2018년 7.9%에서 2019년 상반기 8.2%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저금리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성 개선 여부는 언더라이팅 실적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및 언더라이팅 규제 개선이 필요함
 - 2019년 상반기 대재해로 인한 손실은 평균 미만이었으나, 하반기 열대성 태풍으로 인해 연간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대재해 손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로 미국은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언더라이팅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며, 유럽의 수익성은 2020/21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임

- 호주의 경우 합산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중국은 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분야인 자동차보험의 판매 감소로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지역별 손해보험사 표본 ROE(%)



주: 2019년 자료는 상반기 실적 기준임
 자료: Thomson Reuters; Swiss Re Institute

3.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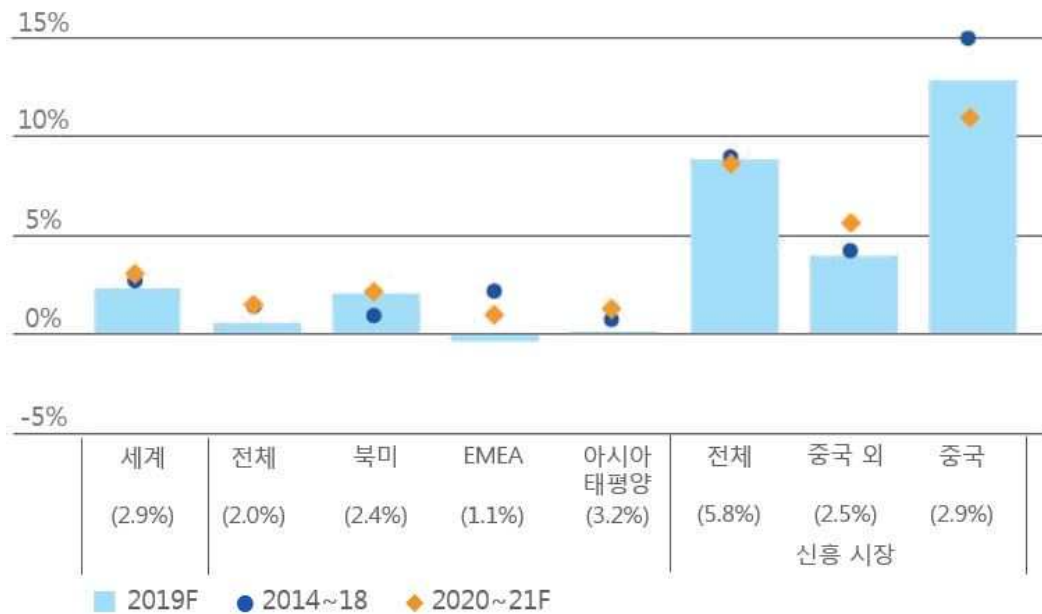
가. 전 세계 생명보험료 성장 및 중국의 성장

- 스위스리는 전 세계 생명보험료가 실질보험료 기준 2019년 약 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2020/21년에는 신흥시장(+9%) 및 선진 시장(+1.5%)의 성장으로 연간 약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선진시장의 실질보험료는 북미지역(+2%)을 제외하고는 성장이 저조(+0.5%에 불과)할 것이나, 신흥시장의 보험료 성장은 약 9%(중국 11%, 기타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EMEA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실질 보험료 수입은 2018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됨
 - 신흥시장의 경우 인구고령화 및 공적 연금의 삭감으로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부문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⁸⁾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이 기대됨⁹⁾
 - 특히 중국은 2018년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로 성장이 저조하였으나, 2019년부터 다시 크게 성장하면서 생명보험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8) WSJ(2020. 1. 9), "2020 Insurance Outlook: A Premium on Innovation"

9) EY(2019. 12. 5), "2020 Global Insurance Outlook"

〈그림 5〉 전 세계 생명보험료 실질·실제 및 전망치(2019년 기준)



자료: Swiss R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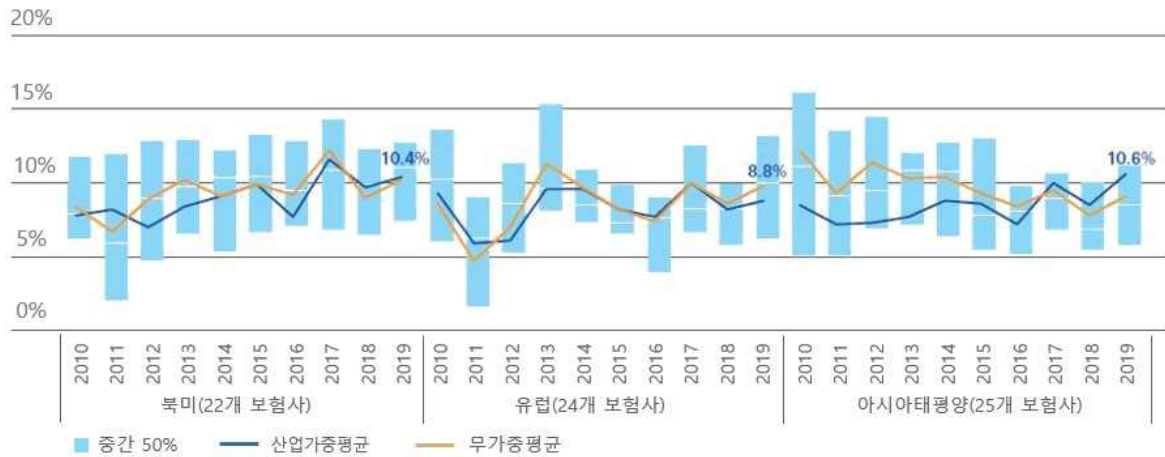
나. 저금리 환경과 양호한 ROE

■ 북미 22개, 유럽 24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25개 생명보험사 및 종합보험사 샘플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회사의 2019년 ROE는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며(〈그림 6〉 참조), 스위스리는 2019년 생명보험 산업에서 평균 수준의 이익을 기대함

- ROE는 미국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9년도 연 데이터를 참조할 때 산업가중 평균(Shareholder-equity Weighted Average)은 10.4%(평균 11%)로 추정됨
- 유럽의 ROE는 대부분 장기 평균 범위 내에서 변동했으며, 최근 평균이 상승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ROE가 상승하였으며, 2019년 산업가중평균은 10.6%로 평균 8.5%보다 높음
- 저금리 환경은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생명보험회사들에 특히 위협적일 수 있으나,¹⁰⁾ 조사를 통해 확인된 ROE에 따르면 향후 전망이 긍정적임

10) EY(2019)

〈그림 6〉 지역별 생명보험사 표본 ROE(%)



자료: Bloomberg; Swiss Re Institute estimates

4. 주요이슈

가. M&A 증가

■ 2019년 상반기 세계 보험회사들의 M&A는 222건으로, 2018년 하반기에 비하여 13.2% 증가하여(〈표 2〉 참조), 2015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¹¹⁾ 향후에도 인수어테크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M&A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Global Data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세계 보험회사들의 M&A 거래액은 129억 2,0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 평균 29억 6000만 달러 대비 336.3% 상승함¹²⁾
- M&A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나, 2019년 상반기 유럽(6개월간 거래 수 40% 증가)에서도 크게 나타났으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2015년 이후 M&A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
- M&A의 가장 큰 원인은 인수어테크,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신흥 시장 진출로, 성장 촉진 및 장기 재무 실적 개선을 위해 M&A를 실시함
 - 포트폴리오 최적화는 세분화·맞춤화된 개인보험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및 고객층 다양화를 위해 진행함
- 제도 변화 또한 M&A의 원인으로, 미국은 세법 개편¹³⁾으로 인해 재보험회사들이 국제 사업 모델을 재평가하게 되었으며, 호주, 인도, 중국의 외국 친화적 규제로 이 지역의 M&A 관심이 증대됨

11) Clyde&Co(2019. 8. 1), "Record global insurance M&A deals in H1 2019"

12) Insurance Journal(2020. 2. 5), "Global Insurance Industry M&A Total Reached \$12.92B in December"

13) 미국의 법인세 징수 기준이 속지주의로 바뀌게 되어, 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외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음

〈표 2〉 글로벌 보험 M&A(거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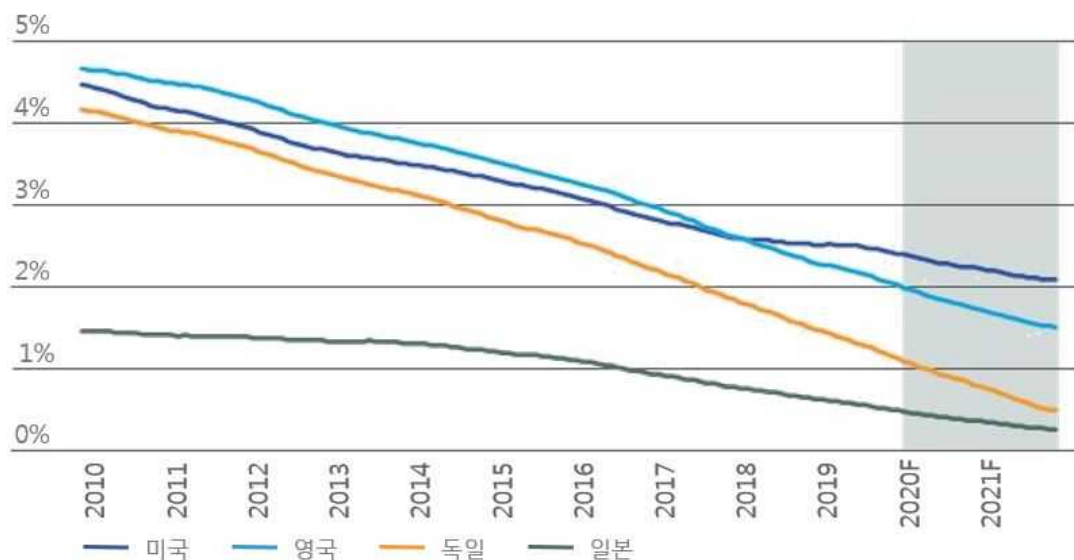
지역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비율 변화(%)
전 세계	196	222	+13.2
미국	92	93	+1.1
유럽	63	88	+39.7
APAXC	34	38	+11.8
MEA	4	3	+25.0

자료: Clyde & Co(2019. 8), "Insurance M&A mid-year update"

나. 저금리 현상 지속

- 스위스리는 저금리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생명보험회사들의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
- 생명보험회사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고정수익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익률이 저하됨

〈그림 7〉 10년 만기 국채 포트폴리오 수익률



주: 지난 10년간 매입한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연도별 수익률임
 자료: Swiss Re Institute

- ❑ 장기 채권을 감안할 때, 낮은 국채 수익률은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에게 부담이므로 투자활동 재정비가 필요함
 - 낮은 투자 수익률은 고정금리 보장 상품의 이자 지급이 부담이 되며, 보험금 지급 능력에도 영향이 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익률 향상을 위한 대체투자(예: 사모펀드, 부동산)와 이율이 낮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균형이 필요함

다. 전자담배의 부정적 영향

- ❑ 최근 전자담배의 사망률에 대한 영향이 증명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의 주요원인인 흡연자 수의 측정 및 보험료 산정에 변화가 예상됨
 - 과거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일반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수가 증가하면 사망률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자담배의 건강상 위해성이 높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805건) 및 사망(12건)이 보고됨
 - 전자담배의 장기적 영향은 불명확하나, 흡연자 수의 측정 및 보험료 산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